FX Market Daily

2025-09-04

전일동향

전일대비 1.30원 상승한 1,392.30원에 마감

3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30원 상승한 1,392.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20원 상승한 1,395.2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핵심 국가들의 재정 우려가 부각된 불안에 따른 파운드화 및 유로화 하락이 달러화 강세를 촉발하며 1,392.30에 종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4.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39.70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95.20	1396.40	1388.20	1392.30	1393.80
엔화	937.50	941.33	933.73	939.70	-
유로화	1618.98	1625.37	1617.12	1623.34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02	-6.6	-13.67	-25.93
결제환율(수입)	-1.7	-5.61	-11.71	-22.5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고용 냉각 신호에...1,380원대 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92.30) 대비 1.85원 하락한 1,387.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구인건수 둔화에 따른 달러 약세 전망된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7월 구인건수는 10개월 만에 최저인 718.1만건으로 집계되며 예상치(738만건) 및 전월치(735.7만건) 모두 하회하며 노동수요 약화를 시사했다. 구인율은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제시한 임계점인 4.5%보다 낮은 4.3%(6월 4.4%)을 기록했으며, 이를 두고 윌러는 노동시장 리스크를 고려해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금리인하 기대감 확대에 따른 달러 약세 압력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간밤 유럽발 재정 건정성 우려가 진정됐는데, 영국 재정 우려로 약세였던 파운드화는 BOE의 매파적 기조에 강세전환했고, 이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되며 약달러 분위기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위안화와 엔화 등 아시아 통화 강세 또한 원화 강세 기대를 높여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출업체의 기계적인 매도 대응이 수급적으로 원화 강세를 뒷받침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수급상 결제수요 등 매수세와 5일 예정된 미 고용지표 관망심리에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85.40 ~ 1393.60 원

체크포인트

-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359.47 억원
-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85원↓
- ■ 美 다우지수 : 45271.23, -24.58p(-0.05%)
-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1.69 억달러
-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06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